

55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유성구 마을 매거진

고리

55



'고리'라는 가능성

'사람이 희망이다.'

작은 책방을 하면서 희망의 씨앗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의 손으로 발아하게 된다는 걸 체득했습니다. 주변에 늘 말하곤 해요. 책방은 책이 채우고 사람이 완성하는 공간이라고. 저에게 책방은 책을 파는 상점을 넘어 서로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마음의 쉼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처음과 끝을 통과했던 만 4년 동안 운영에 있어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읽는 내일을 꿈꾸며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책방에서 받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삶의 많은 요소들이 비대면화, 디지털화 되면서 골목 상점, 작은 공간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소비라는 활동에 '사람'이 생략되기 시작했지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스마트폰은 지극히 평범한 생활용품이 되었고요. 무인점포 형태의 카페와 문구점이 동네 곳곳에 늘어갑니다. 사람이 사람의 눈을 마주 보는 시간보다 이제는 화면을 마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집을 오가며 그 짧은 사이 시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할까요? 방과 후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자유 시간이 드물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서 가상의 친구와 놀고, 채팅방에서 단문으로 말을

주고받지요. 궁금한 건 어른에게 묻거나 책을 찾기 보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웃'과 '마을'은 이제 교과목을 통해 학습하는 하나의 개념일 뿐, 더 이상 흔히 경험하는 일상이 아닙니다. 책방지기로써 책방이 공간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겨 찾는 '이웃 상점'이 되길 늘 바라왔지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책방에 있는 이모, 친구들, 책 이야기보다 편히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책방을 하며 나눔 받고, 깨달은 것들은 작게나마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책방이 있고 책방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동네를 잇는 활동, 동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지요. 그 활동의 중심에는 어린이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가 사는 마을을 경험하고 마을 이웃을 따뜻하게 추억하길 바랐지요. 마을과의 '소통', 이웃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소통의 흔적을 작은 책자 형태로 남기고 싶었고, 기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방을 하며 알게 된 우리 지역 어른들께 어린이 마을교육 활동의 체험처이자 강사가 되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책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까지 깊은 삶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네 카페, 동물 병원, 디자인 스튜디오, 작은 도서관, 그리고 책방과 오랜 인연으로 편집 위원을 맡아준 책벗들이 존재하기에 이 탐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 내 여러 면에서 서투르고 느렸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기자단을 향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연결고리>와 <보금자리>의 마을 생태 활동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답니다. 뜨거운 여름을 어린이 마을 생태 활동으로 보내고, '고리'라는 이름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마주보며 미소 짓고, 귀를 세워 곁에 있는 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쌓이면 고리도 하나씩 늘어갑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고리, 사람과 마을을 잇는 고리, 사람과 지구를 잇는 고리, 사람과 이야기를 잇는 고리...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마을도 좀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 구석구석에 숨은 다정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수집해 엮었습니다. 마을 책방지기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매거진 『고리』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뜻을 함께 나눈 이웃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천천히,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동안 마음을 모아 『고리』를 엮어 준 편집 위원 평정, 와작와작, 송이, 발걸음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11

- 버찌책방 지기 조예은

(@cherrybooks_2019)



목차

- 05 | 편집자의 레터 : '고리'라는 가능성
- 10 | 들어가는 글 : 편집 위원들의 한마디
- 14 | 함께 읽은 책 01 :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들, '커뮤니티 디자인,'
- 24 | 커피 한 잔으로 배우는 어린이 경제학 | 카페 온도
- 30 | 동물 병원은 처음이에요 | 행복드림 동물병원
- 38 | 어린이 기자단이 생각하는 '잡지'란 무엇일까요 | 디자인스튜디오 솔로몬트
- 46 | 우리 마을 하천을 담다 | 반석천 줌깅
- 68 | 동네에 관심이 생겼어요 | 그림책으로 잇는 마을 이야기
- 76 | 작은 도서관을 아세요? | 모퉁이 도서관
- 86 | 작은 책방에서 고르는 나만의 한 권 | 버찌책방
- 92 | 함께 읽은 책 02 : 변화의 시작은 우리, '크루얼티 프리,'
- 100 |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 업사이클링 공동체 <반석천에 반하다>
- 102 | 기고 : 오늘에 의미를 더하는 법 | 우리 지역 작가 돌고래
- 106 | 마치는 글 : 편집 위원들의 한마디

들어가는 글_ 편집 위원들의 한마디

▶ 활동가 발걸음 (@shiningkey_reads)

마을기록이라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매일 자라고 있는 어린이부터 가정과 삶을 꾸려나가는 어른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사람과 만나며 살아간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록이고 이야기라 생각했기에 어린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시선으로 만난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마을 매거진으로 만들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

▶ 활동가 외작외작 (@crunch631)

책방에 책을 사러 가지만 나도 모르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기다려졌다. 커피는 한 잔을 마셔도 진심이 담긴 커피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산책길에 만난 '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시선에 감동하기도 했다. 그렇게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고 어린이와 어른이 만나는 순간들이 기쁨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어른들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길 바라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을 어린이를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어른들과 자연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동네를 조금씩 알아가며 만들게 된 마을 매거진 '고리'는 함께 배우며 연결된 첫 발걸음이다.

▶ 활동가 평정 (@choyoung8102)

책을 함께 읽던 친구들과 '읽'을 '삶'으로, '나'에서 더 넓은 '우리'로 발전해보자는 취지에서 '와글와글 유성 동네학당' 사업에 지원했다. 우리에게는 어린이가 부르면 할 수 있는 마음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고, 서로의 보폭을 맞춰 줄 팀이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급격하게 단절되어가는 관계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일까? 한낱 단어가 아닌 진짜 '나'와 '너'가 만나 끈끈하게 맺어진 '우리'와 생동감 넘치는 '동네'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만나는 우리 마을, 다양한 직업군의 어른들, 아름다운 자연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해 어린이 매거진으로 만들었다. 여기, 어린이 기자들과 함께한 여정에 당신을 초대한다.

▶ 활동가 한송이 (@viewtiful_flower)

마을 활동의 시작은 뜨거운 여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긴 방학 동안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우리의 마을 울타리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매일 걷던 반석천은 더 아름다웠고 함께 활동하며 만났던 사람들은 다정하고 소중한 이웃들이 되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활동했던 소중한 시간과 경험의 힘을 마을 잡지 '고리'를 통해 기록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로 확장되는 첫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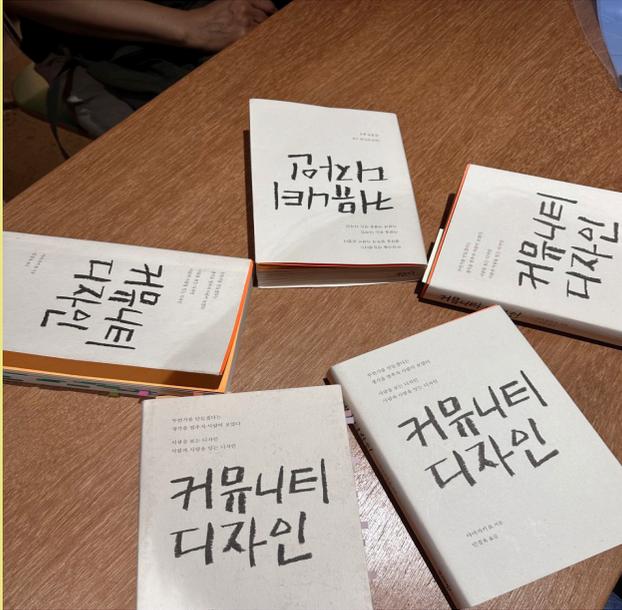
55



55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들

함께 읽은 책 : 『커뮤니티 디자인』



마을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이었다. 코팅 되어 있지 않은 종이 본연의 거친 질감, 손으로 힘주어 또박또박 눌러 쓴 듯한 제목에서부터 커뮤니티란 이런 것이라라고 말해주는 듯 하다. 우리는 저녁 식탁을 치우고 아이들이 잠들 무렵, 책방으로 모였다. 처음 시도하는 공동체 활동의 첫 걸음에 걸맞은 함께 읽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변화의 시작'은 '지금 여기 함께 하는 사람'임을 확인했다. (활동가 & 에디터 버찌)

▷ 밑줄 친 문장 :

“사회적인 과제 앞에서 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주제가 이 때 명확해졌다. 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라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design 이라고 쓴다. de-sign이란 단순히 기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인(sign)에서 벗어나 (de), 과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리라.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은 바로 그런 디자인이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중심 시가지의 쇠퇴, 한계 취약, 삼림 문제, 무연고 사회 등 사회적 과제를 아름다움과 공감의 힘으로 해결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에 직면한 우리 스스로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p.257)

▶ 활동가의 생각 :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어딘 가에서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단절과 연결의 세계에서 디자인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이야기는 무척 신선하다. 소비를 지향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과 마을이 연결되는 방법으로서의 디자인은 ‘사람을 보는’ 디자인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끈끈한 유대와 연대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마을 활동가발걸음

▷ 밑줄 친 문장 :

“풍경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쌓여 생겨난다. 나무를 심거나 물을 흐르게 하고 물리적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풍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활과 행위가 조금 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풍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p.98)

▶ 활동가의 생각 :

이동식 책방을 시작하고 나서 결국 변화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걸 깨달았다. 물리적 공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피는 이용자들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될 때 공간도 살아났다. 만 4년 동안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생 유성 보금자리 마을 활동, 매거진 『고리』 제작을 위해 어린이 기자단을 꾸리고 마을 곳곳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동안 나는 우리가 마을의 풍경을 새로 쓰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마을 활동가 버찌

▷ 밑줄 친 문장 :

“시대가 바뀌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면, 나와 주변을 새로이 탐색하여 저마다 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엔 착수해야 한다. 혼자 시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참여하는 힘이 마을을 구축한다.” (p111)

▶ 활동가의 생각 :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역이나 사회를 위해 스스로 즐기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며 공공장소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삶의 방식이라고 소개한다. 우리가 함께 하기로 계획한 마을 활동의 지킴서가 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기쁨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삶의 방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관계의 회복, 스스로의 즐거움, 함께 하는 힘을 위해 가치와 가능성의 디자인, 살아 움직이는 디자인의 방식이 서로에게 다정한 기쁨이 되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마을 활동가 외작와작



▷ 밑줄 친 문장 :

“혼자 할 수 없다면 함께한다.” (P.142)

“아이가 어른의 진심을 끌어낸다.” (P.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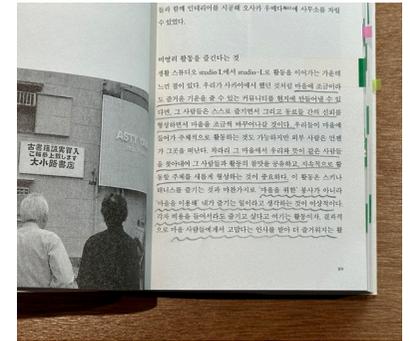
“사람이 모이고 미래를 만든다.” (P.228)

▶ 활동가의 생각 :

일본 가사오카 제도를 이루는 7개 섬에서 5학년 이상의 초등학교생 13명이 ‘섬’을 위한 계획(10년)을 만들어 제시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학업과 직장을 위해 섬을 떠나도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 어른들은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저자는 어른들이 계획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4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섬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수없이 확인했다”라고 섬의 미래에 희망을 심었다.

코로나 19로 ‘우리’라는 단어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한 듯 ‘나’ 그리고 ‘너’로 잘게 쪼개진 것 같다. 복잡복잡하고 따뜻했던 마을, 마스크 없이 친구와 마음껏 뛰놀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로서 요즘 아이들과 우리의 삶이 안타깝다. 달라진 삶의 모습을 꿈꾸지만 혼자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같이하면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너와 나를 잇는 연결고리’가 설렘을 안고 도전하는 어린이 매거진이 『고리』가 우리 동네의 ‘함께’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마을 활동가 평정



▷ 밑줄 친 문장 :

“풍경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쌓여 생긴다. 나무를 심거나 물을 흐르게 하고 물리적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풍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행위가 조금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풍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p.98)

▶ 활동가의 생각 :

마을 잡지 『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지침서처럼 손에 쥐어진 커뮤니티 디자인 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었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마법 같은 책이었습니다. ‘혼자라도 시작한다’에서 ‘함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활동을 하며 10년 뒤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우리를 둘러싼 마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게 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을 활동가 한승이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어린이 기자
이규우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민우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성우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유성구 작은 마을 어린이 매거진 #고려
4월 어린이 기자
이재원

55



55

커피 한 잔에 담긴 친절; 반석동 <카페 온도> 탐방

글. 활동가와작작작



커피 한 잔으로 배우는 어린이 경제학

어린이 중심의 마을 탐방 활동을 담은 매거진 『고리』 첫 번째 시간을 열어주신 분은 '카페 온도' 사장님이다. 어른들이 돈을 내고 먹는 커피 한 잔 이야기에 '경제'라는 키워드를 넣어 『커피 한 잔으로 배우는 어린이 경제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셨다. 대개 어른들만 이용하는 공간에 어린이들이 모여 커피 이야기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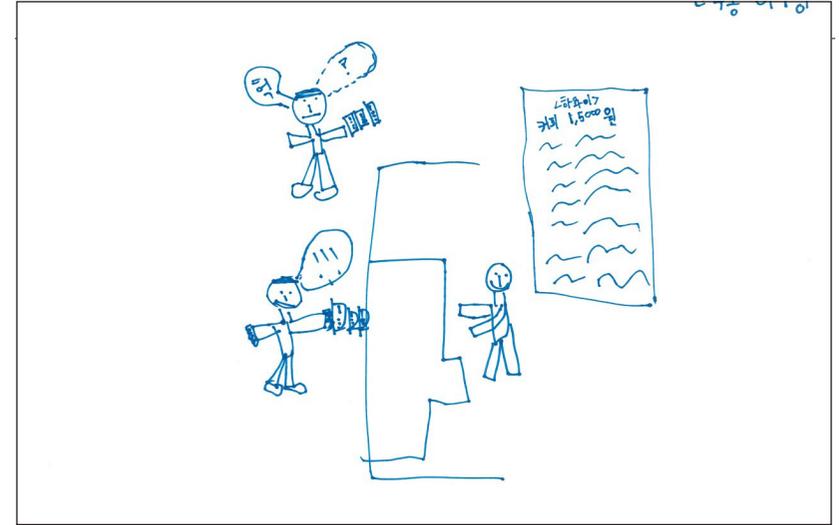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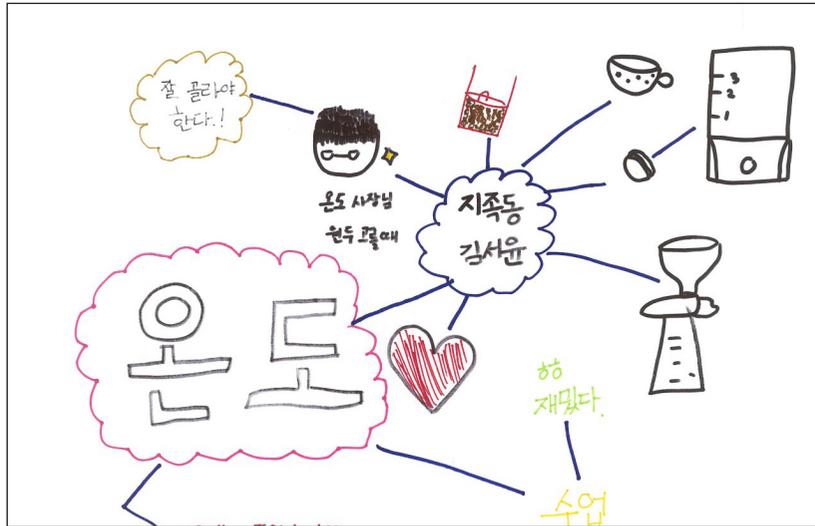
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긴 것이다. 어른들의 식사와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커피는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기호 식품이다. 맛과 향, 색깔 모두 어린이들의 취향과 거리가 멀다. '카페 온도'에 모인 어린이들이 탐방을 마치고 커피를 어떻게 기억할지 벌써 궁금하다. 궁금증을 가지고 온도 사장님 이야기에 어린이들과 함께 귀 기울여본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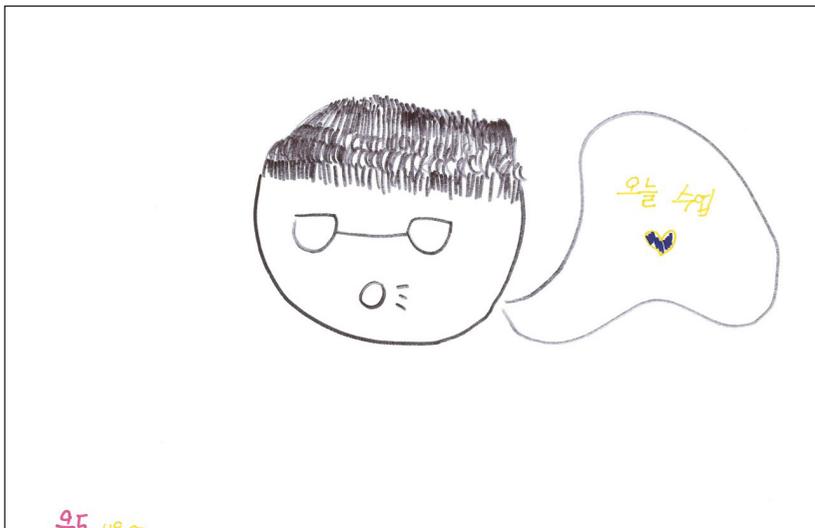


커피 원두의 재배부터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맛있는 커피란 무엇일까? 매일 커피를 마시지만 취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커피콩은 사실은 콩이 아니라 커피나무로 자라나게 될 열매의 씨앗이다. 과육을 발라내고 씨앗을 말리면 이것이 커피의 생두이다. 이것은 녹색을 띠고 있어 그린 빈이라 불리는데, 직접 준비해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향도 맡아 볼 수 있었다. 생두를 볶아야 갈색의 원두가 된다는 사실은 갈색의 원두

만 익숙한 어른들에게도 신기한 일이다.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이나 품종은 다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도를 통해 위치와 품종을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커피의 맛을 알고 취향이 생기기 전까진 품종에 따라 커피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어른들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커피의 맛은 가공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모두 집중해 듣는 모습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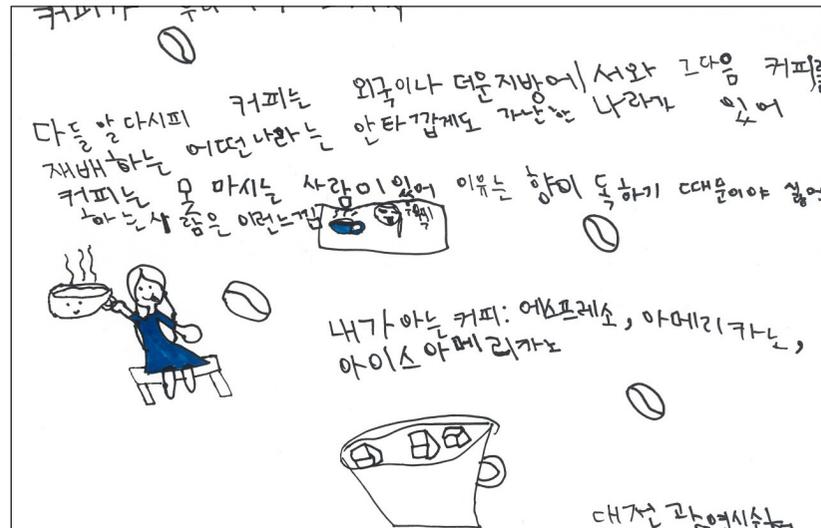




맛있는 커피를 위해 노력하는 작은 카페의 마음

평소에 어른들은 계산대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린다. 오늘은 특별히 사장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로스팅 한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카페 온도'에서는 직접 로스팅해 커피를 내린다. 생두를 볶는 방법,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커피의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로스팅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익숙하지 않은 향을 맡고, 남은 찌꺼기도 만져보며 체험 활동을 했다. 활동 이후 말린 과육을 따로 준비해 뜨거운 물로 우려 맛볼 수 있게 배려해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 단순히 커피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린이를 존중하고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친절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일로 어린이에게 어른의 다정함을 보여주셨다.



바다를 건너 우리 손안의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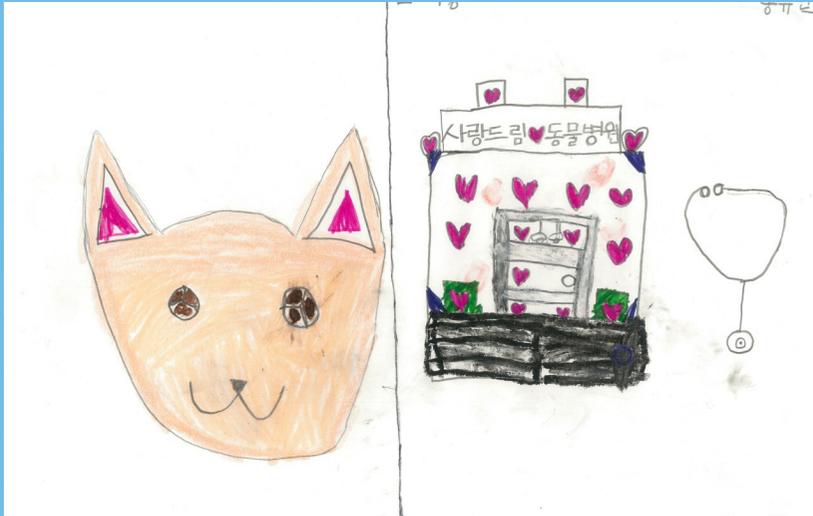
커피콩의 여정을 자료와 친절한 설명에 따라 어린이들은 그림과 간단한 글로 '커피'를 표현했다. 글과 그림에 담긴 내용을 보며 탐방이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친절한 어른은 어린이들을 꼼꼼게 한다. 다정한 어른은 어린이들을 웃게 한다. 함께 하는 시간 내내 어린이들은 웃고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다.

▷ 마을 선생님 카페 온도 강형규 사장님의 말 :

커피가 비록 어른들의 음료이지만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쌀이 우리들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아는 것처럼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커피가 생산되어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부자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린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물병원은 처음이에요 지족동 <행복드림 동물병원> 탐방

글. 활동가 한송이



“엄마, 우리도 강아지 키우자, 고양이는 어때? 그럼, 물고기는?”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척하고 애써 외면했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기에 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 일정 중에 동물병원 탐방 및 수의사 선생님과 만남 일정은 아이들이 꼭 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물병원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이들과 함께 노은3동에 있는 ‘행복 드림 동물병원’에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강아지 기자단 별이의 기본 진료를 함께 보았어요

동물병원은 어린이기자단과 내원한 손님들로 다소 혼잡했지만, 아이들은 약속한 대로 질서를 잘 지켜주었다. 어린이 기자단은 병원에 내원한 반려견과 주인의 모습도 관찰하고 동물들을 위한 물품도 둘러보았다. 병원에 내원한 개와 고양이를 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지만, 동물들을 배려하며 바라만 보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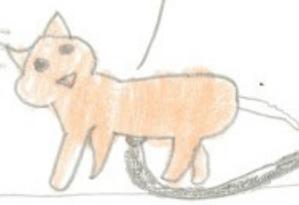
잠시 시간을 내주시는 수의사 선생님과 활동가 버찌의 반려견 '별이'의 진료를 보는 것으로 체험을 시작했다. 동물병원에서 증성화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 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진료대 위에 올라왔다. 별이 이름으로 진료 이력을 검색하자 언제 무엇 때문에 내원했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동물의 이름으로 진료기록을 찾아보는 것을 흥미로워했다. 진짜 청진기로 돌아가며 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동물의 체온은 어디로 짚까요?”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머뭇머뭇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사람의 체온은 귓속 온도로 재지만 동물은 항문으로 체온을 잰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빼가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도 보고 증성화 수술이나 간단한 수술을 하는 수술실과 수술실 조영, 수술 후 회복하는 회복실, 처방받은 약을 제조하는 제조실 등 병원의 모습을 둘러보며 동물병원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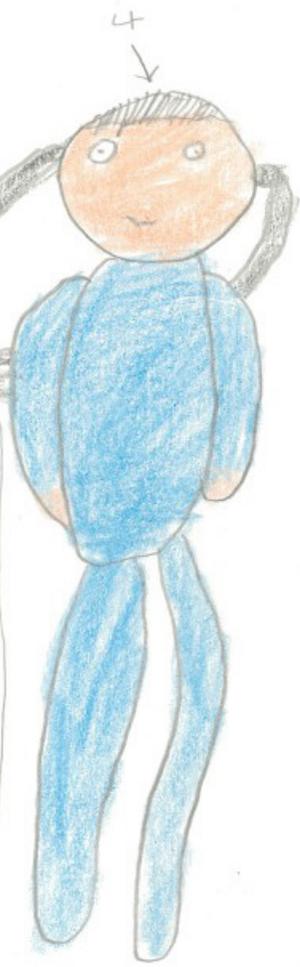
반려동물을 향한 사랑은 책임도 함께 해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아플 수 있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눈으로 보며 경험한 활동이었다. 또한 마을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아이들만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한 시간이기도 했다. 동물병원 탐방 이후의 활동은 버찌 책방으로 이동하여 동물병원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다. 아이들만의 시선이 담긴 의미 있는 창작물이 잡지에 수록된다고 하니 아이들은 더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림과 글을 남겨주었다. 이번 활동은 교과과정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을 탐방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린이기자단은 반려견의 목적에는 사랑과 책임의 줄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까? 아이들의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진다.

김서진
지족동



반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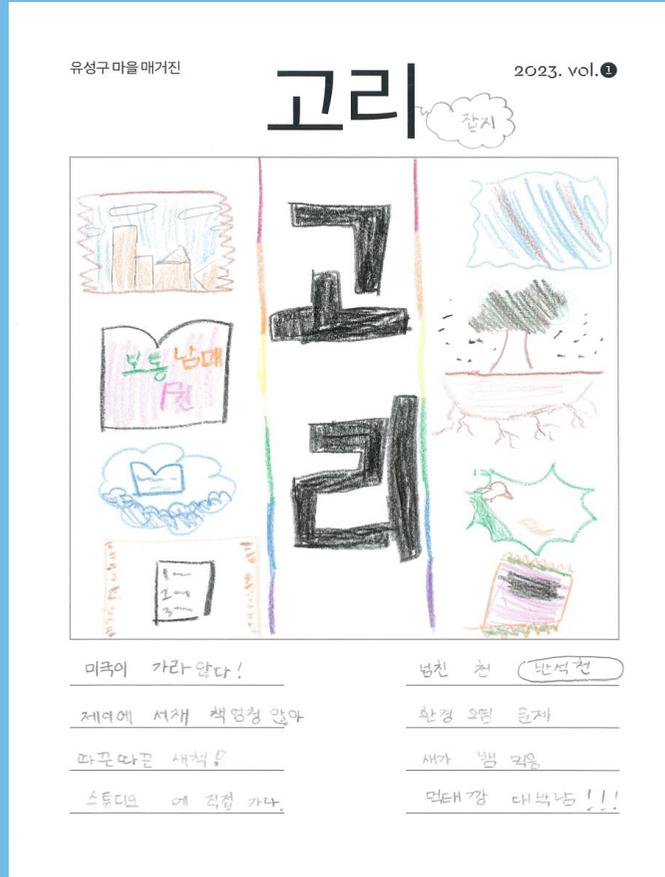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 이야기,



어린이와 어른이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우리 마을 탐방

'잡지'가 뭘까요? ; 지족동 <스튜디오 슬로먼트> 탐방

글. 활동가 버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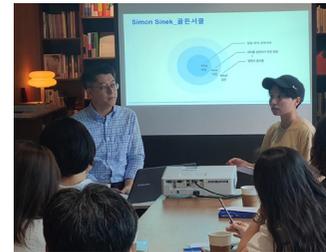


아이들이 '잡지'라는 장르를 어떻게 이해하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매거진 『고리』를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다. 잡지의 출판과 소비가 현저히 줄어든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과연 잡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기획자로서도 의문이었다. 필자가 어렸을 적 스마트폰과 인터넷 tv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초등학생에게 잡지는 오락거리와 정보 제공해주는 어마어마한 수단이었다. 보물섬, 밍크, 윈크, 화이트... 매달 만화 잡지가 나오는 날이면 동네 문방구로 눈썹 휘날리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은 '설렘'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남아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잡지'를 설명해 주는 일

요즘 어린이들에겐 잡지의 역할을 해주는 매체가 유튜브 일 것이다. 무엇이든 없는게 없는 디지털 만물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아이들에게 '잡지'를 어렵게나마 소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했다. 책방 손님 중에 잡지라는 매체와 가까이 지내는 어른, 바로 우리 지역 디자인 스튜디오 슬로먼트 전민제 실장님이다. 버찌책방의 리브랜딩 작업을 함께 했던 전민제 실장님은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디자인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보기 드문 다독가이자 아이를 잘 이해하는 아홉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하다. 매거진 『고리』 사업에 참덕민 이웃이 아닌가!



마을 교육 사업 첫 행사로 책방 손님들을 위해 일반인 대상 기획과 디자인을 주제의 <공장 파괴 지침서> 강의를 해주셨다.
좌: 전민제 실장 | 우: 책방지기 버찌



'기획'과 '디자인' 작업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기

무더운 여름날 오후, 책방에서 모인 어린이 기자단은 지족동 슬로먼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고요한 디자인 스튜디오는 금세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잡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아홉 살 아이 아빠인 실장님의 노력이 테이블에 고스란히 준비되어 있었다. 과자와 주스가 있는 자리에 본능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앉은 어린이들은 아빠 같은 전민제 실장님의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우기 시작했다. (역시, 먹을게 최고다!)



*어린이 기자단은 슬로먼트 전민제 실장님에게 책 한 권 씩 감짝 선물을 받기도 했다

'잡지'란 '창고'같은 종이책

슬로먼트 (sloment)는 'slow(천천히)'와 'moment(순간)'의 합성어로 생각과 디자인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즉, 일을 피하거나 계획하는 '기획' 단계에 생각을 실제화, 시각화하는 '디자인' 단계의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모인 회사로, '잡지'는 클라이언트의 콘텐츠를 스튜디오 슬로먼트의 아이디어와 디자인 감각을 입혀 시각화한 결과물인 것이다. 설명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잡지'는 다양한 생각과 글이 모여 있는 '창고'같은 종이책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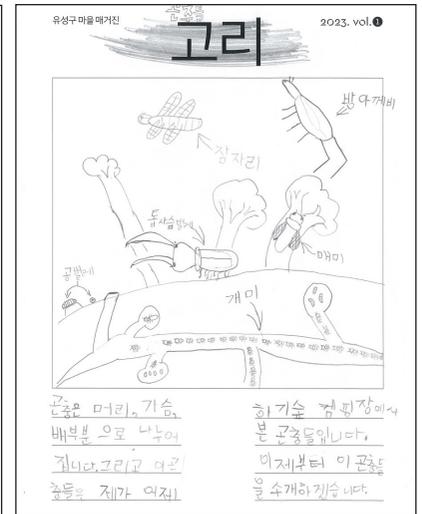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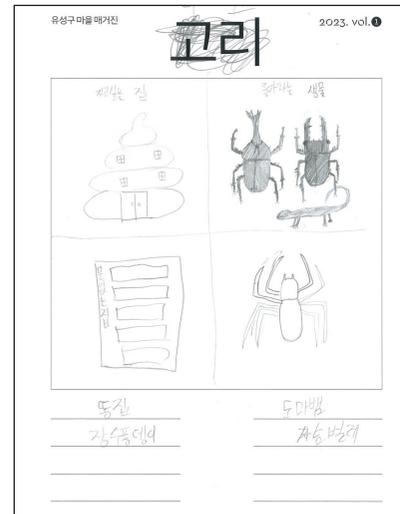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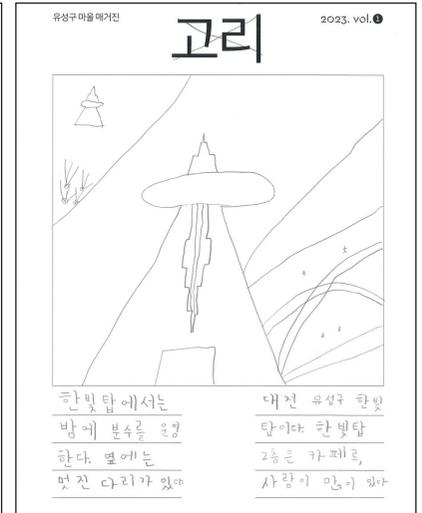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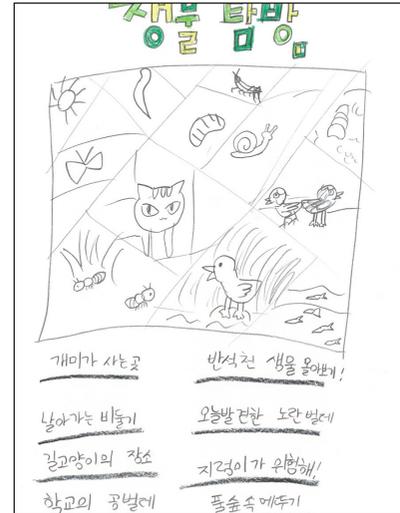
“자, 오늘은 다양한 생각이 모인 창고 같은 잡지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역시 기획자답게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로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한 활동지까지 준비해 주셨다. '유성구 마을 매거진 고리 2023 vol. 1' 이라는 타이틀이 적힌 흰 종이를 보니 어린이 기자단을 이끌고 온 어른 활동가의 마음가짐도 비장해진다. 머릿속에 있고, 말로만 꺼냈던 단어들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으니 (아까 말한 '시각화'의 기초 단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미 『고리』 매거진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은 '고리'라고 적혀있는 하얀 종이 위에 동네에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로 채우기 시작했다. 반석천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 엑스포 한빛탑, 좋아하는 간식과 책 이야기로 <고리>의 바탕이 될 콘텐츠들이 30분만에 탄생했다. 심지어 아이들은 어른들이 정해놓은 '고리'라는 이름 대신 나만의 이름으로 적기도 했다. 리고, 대전, 생물 탐방, 곤충들... 틀을 거부한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새롭게 적을 줄 아는 어린이들의 용기와 재치에 감탄할 수 밖에 없던 시간이었다. 매거진 『고리』의 콘텐츠 절반 이상은 어린이 기자단의 몫이기에 오늘의 탐방이 뜻 깊었을 것이라 믿는다.

▷ 마을 선생님 슬로몬트 전민제 실장님의 말 :

고리'라고 쓰인 여백에 자기만의 생각을 채워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게 있어서 평소에는 낯선 사람 들처럼 지나치지만 서로에게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 끈이 서로를 조 심스럽게 당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리'가 제 게 올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55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책을 잇고
사람과 마음을 잇다

55

우리 마을 하천을 담다 ; 반석천 탐방

글. 활동가 발걸음 & 평정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소

반석천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우산봉 동남쪽에서 발원하여 반석동, 지족동, 죽동, 장대동을 지나 유성천에 합류하는 유성천의 지류이다. 반석천 7.5km 구간에는 수달, 자라, 왜가리 등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 살고 있어 생태하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어 주민의 여가활동의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소이다.

반석천에 봄이 찾아오면 상류 (꿈에그린 아파트 인근)부터 대전 유성경찰서 인근까지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반석천 벚꽃로드'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봄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봄은 마을의 자연환경을 즐기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반석천 탐방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도 비슷하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아이들과 함께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등갓길과 산책길,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는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다. 내가 살고있는 마을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마을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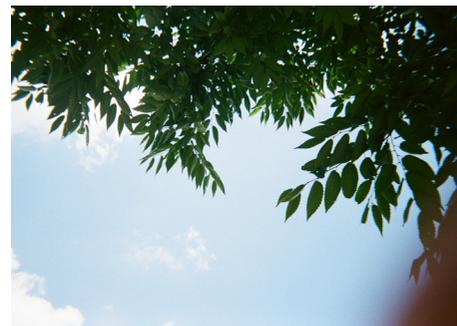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마을과는 또 다른 배움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환경교육은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심코 버리는 담배꽂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음료수 캔, 마스크 모두 어린이가 버린 쓰레기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환경보호에 대해 배워도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스펀지처럼 배우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세상에 버려진 담배꽂초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왜 피우는지, 담배를 피우고 왜 꽂초를 아무렇게나 거리에 버리는지 여전히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인 우리가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어린이로부터 배우고 반성하는 일이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필름에 기록한 마을 풍경

쓰레기를 줍는 활동과 사진을 기록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들 손에 하나씩 들려진 쓰레기 집게와 쓰레기봉투만으로도 아이들은 무거워했다. 아이들에게 낯선 필름 카메라에 관해 설명하고 필름 카메라에 대한 몇 가지 유의사항만을 말해주었다. 아름답고 완벽한 사진을 찍는 요령보다는 아이들의 시선대로 자유롭게 반석천의 모습을 담기 바랐다. 비록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고 일부는 손으로 가려지더라도 아이들이 눈으로 바라본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 믿는다. 내가 사는 마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필름에 기록되어 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반석천의 풍경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한 번 바라봐 보자. (활동가 발걸음)





55

55

어린이와 어른, 우리가 함께 지키는 삶의 터전

현수막에 쓰여있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라는 허공에 대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두 발로 걷다가 예쁜 꽃에 보고 멈춰 서 향기를 맡고 이내 이름을 찾아보면, 이후 어디를 가든 그 꽃은 눈에 잘 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아보면, 그 물가의 크고 작은 변화들에 관심이 간다. 자연 가까이에서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때로는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해 보아야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진심이 우러나온다.

9월 초,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바람을 쐬며 우리 동네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반석천 생태탐방'과 관련 활동을 계획했다. 탐방에 참여하는 어린이 기자단과 부모님들이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 한다면 그 의미가 더 크리라 생각했다. 어린이와 어른, 아이와 부모가 함께 우리가 사는 곳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보는 경험은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될 것이다.





쓰레기 사냥꾼이 되자!

예상과 달리 여름 못지않게 뜨거운 9월 초, '반석천 생태탐방'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봉투와 집계를 든 쓰레기 사냥꾼으로 변신했다. 사전답사로 하천의 카페 주변과 계단, 벤치에 집중된 쓰레기를 파악했던 터라, 다리 아래의 그늘을 쫓아 삼아 활동을 이어갔다. 쓰레기 사냥꾼들의 실력은 생각보다 놀라웠다. 다리 아래 구석진 곳에 꼭꼭 숨은 쓰레기를 찾아내고, 커다란 현수막부터 부러진 우산, 담배꽂초와 찢어진 껌 종이까지, 어른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는 용기와 순수함에 감탄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아이들 곁에 있는 어른들도 미소를 지으며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플로깅의 목적지는 작은 책방

하천의 쓰레기 줍기 활동을 마치고 버찌 책방에 모여 생태수업과 활동을 진행했다. 놀이터와 벤치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가 비와 바람에 실려 물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 여기저기에 플라스틱 섬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들이 결코 단편적인 문장이 아닌, 나와 우리의 삶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나누고 싶었다. 두 시간여의 플로깅 활동 후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집중하는 아이들이 정말 기특했다. '우리 마을 어린이 기자들, 참 멋지다!'



반석전 풀다발 만들기

탐방 소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몇몇은 우리 동네의 길가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강아지풀을 비롯한 이름 모를 꽃과 식물들로 '풀 다발'을 만들었다. 다 마신 음료 캔의 뚜껑을 없앤 꽃병에 꽂아주니 테이블 위에 가을 향기가 가득 찼다. 계절이 바뀌어 모양도 색도 달라지는 식물들을 관찰하고, 조심스레 꺾어(나무를 제외한 길가 식물의 꽃은 씨를 퍼트리기 위한 기관이므로 잘라내도 괜찮다)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꽃다발과 다른 '풀 다발'의 멋을 알게 된 아이들은 길가의 식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탐방에 참여하고 활동해 준 어린이기자단, 즐겁고 안전한 활동을 위해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신 어른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어린이들, 근사한 어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다.







9.10 김유진

그림책으로 잇는 마을 이야기; 동네를 표현해 보아요

글. 활동가 와작와작 & 한승이



동네에 관심이 생겼어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동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단골 책방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눈다. 형이 되고 누나와 언니가 되어 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이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했다.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은 누구나 동네에 다정한 장소가 많고 어린이들이 이름 불러어질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어린이 중심의 마을 탐방활동을 계획하면서 우리 동네에 애정을 갖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지도를 떠올렸다.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들어보자!

먼저 유성 관내 지도를 보며 유성구가 몇 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모인 친구들은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하며 지도로 위치를 확인했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에 반석천과 반석 초등학교, 버찌책방과 탐방 활동을 마친 카페 온도와 동물 병원을 미리 표시해 기준으로 삼았다. 노은동 라르레 미술 교습소 한아영 원장님이 지도 만들기에 도움을 주셨다.



어른들이 살던 동네와 지금 동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 줄 그림책 『나의 사직동』을 읽어주었다. 실제 사직동 풍경을 사실적인 그림과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화풍이 어린이들에게 옛 동네의 모습과 사직동이 재개발 되는 과정에서 동네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어른들 대부분은 공감이 되는 작가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니 낯설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뽕콩 아파트』를 함께 읽고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아파트 사는 어린이들은 “뛰지 마라”, “살살 걸어라”는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주문을 자주 듣는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이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에어매트를 깔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노력한다. 에너지 넘치는 어린이들에게 아파트는 혹독한 공간이다. 언제쯤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을까? (활동가 와작와작)



다니엘은 여러 이웃과 잘 알고 지내요

그림책으로 잇는 마을 이야기 수업을 준비하며 『다니엘의 어느 멋진 날』 그림책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그림책은 “다니엘은 여러 이웃과 잘 알고 지내요”라고 시작한다. 책 속 이웃들은 할머니 집에 가는 다니엘에게 “멋진 날 보내렴” 다정한 인사를 나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아이는 여러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는데 “어떤 날이 멋진 날이에요?”라고 물어보는 다니엘에게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추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생각하는 ‘멋진 날’에 대한 대답을 한다. 아이에게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은 페인트칠하는 부인, 이웃 누나, 부부, 아기 돌보미, 정원사, 버스 기사, 빵집 주인, 집배원, 신문잡지 판매원, 건널목 안전요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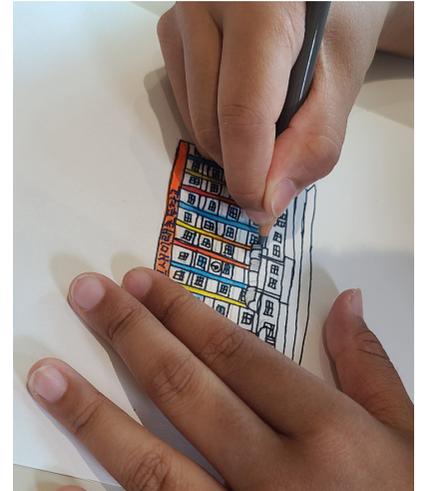
마을 지도 만들기 참여하는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일까?

아이들이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주 찾아가고 좋아하는 곳은 어디일까?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에 관한 질문은 계속 커져만 갔고 아이들의 세상이 궁금해졌다. 마을 교육을 신청한 유성구에 사는 아이들을 만났다. 어색함과 서먹함도 잠시, 유성구 지도에서 내가 사는 곳의 위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유심히 지도를 보며 자기가 사는 동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다. 과거 동네 풍경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림책 『나의 사직동』과, 아파트에 살면서 겪는 층간소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반전이 있는 책 『쿵쿵 아파트』를 함께 읽었다. 또 다른 활동으로 ‘마을 지도’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과 자주 찾아가고 좋아하는 곳의 건물을 그리고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유성 마을 지도

노은동 라르떼 미술학원 한아영 원장님의 지도 밑그림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채울 수 있는 노은3동 지도를 준비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아이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함께 하는 어른에게도 축복의 시간이었다. 비어있던 마을 지도는 아이들의 손길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모퉁이 도서관, 아가랑 도서관, 학교, 학교 주변에 있는 간식 창고와 편의점이 마을 지도에 그려졌다. 송림마을 1단지, 반석마을 1단지도 생겼다.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그림을 소개하며 지도에 표시하자 어느새 아이들 사이 생긴 마음의 담장도 점점 낮아지는 듯했다. 마을 지도는 사람 사는 냄새가 솔솔 나는 듯했다. 아이들은 마을 지도에 건물 뿐만 아니라 사람, 나무, 고양이, 강아지, 곤충도 함께 그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늘 함께하는 존재였다. (활동가 한송이)



작은 도서관을 아세요? ; 모퉁이 작은 도서관 탐방

글. 활동가 발걸음



다양한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마을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선배어린이도서관'으로 설립한 뒤에 전민동으로 이전해 '모퉁이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뒤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의 작은 도서관이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사서 자원활동가 약 56명이 활동하고 있고 24,500여 권의 도서를 소장중이다. 지역공동체 도서관으로 누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도서를 자유롭게 대출 할 수 있다.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마을도서관이기에 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서 자원봉사와 동아리 모임, 도서관 운영 활동에도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는 책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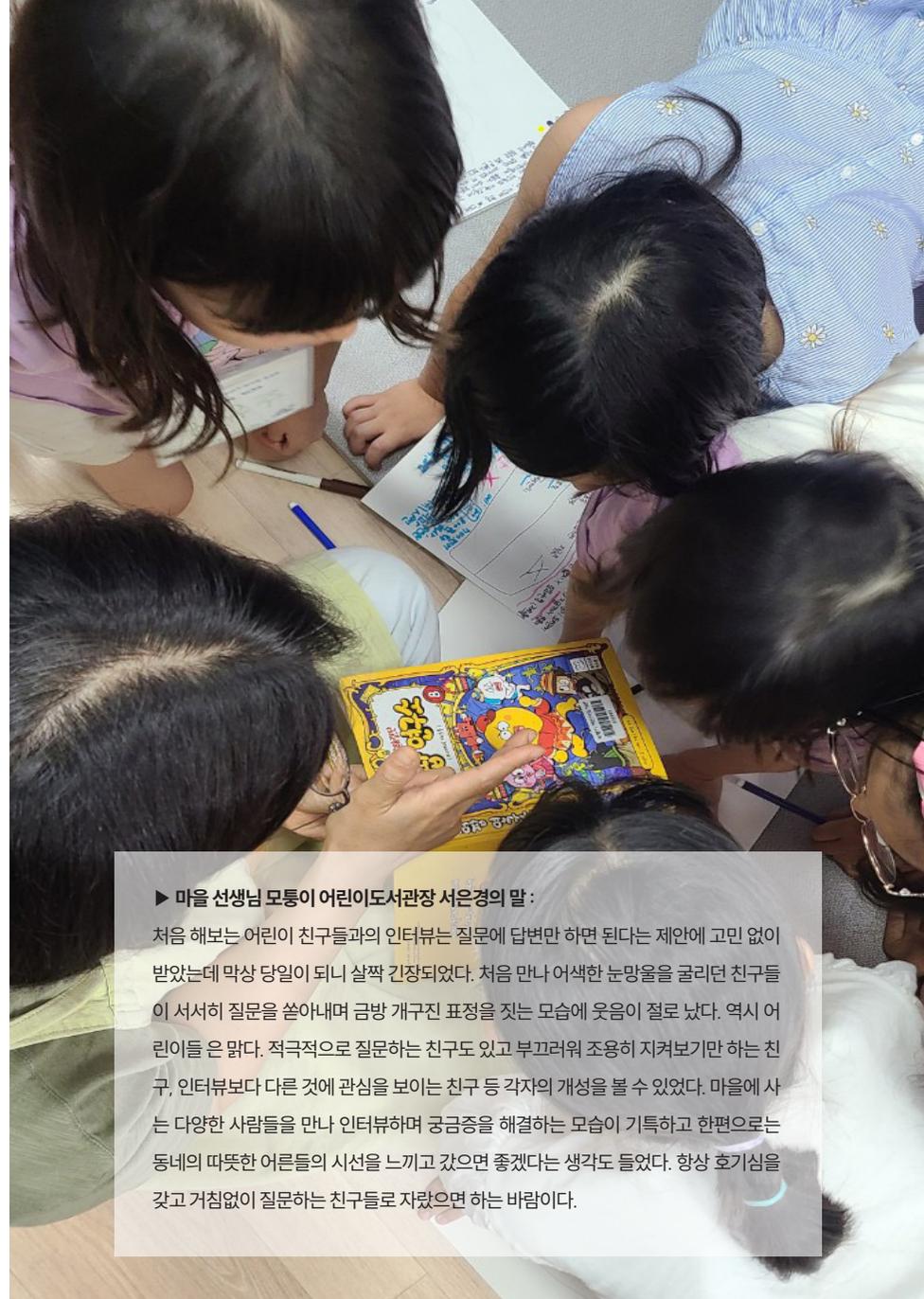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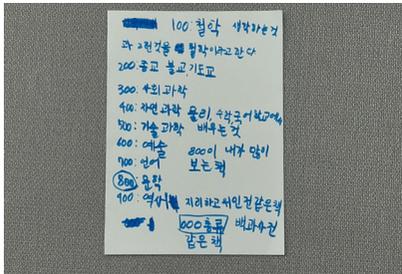
유성구가 다양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을 탐방할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마을 공동체의 자원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마을의 어린이에게 유익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어린이기자단은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지역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도서관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곳의 제 4대 공동관장인 서은경 관장은 1998년부터 '선배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된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역사와 현재 전민동에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어린이 기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어린이 기자들의 열띤 질문 공세로 취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청구 기호로 원하는 책을 찾자!

어린이 기자들의 취재가 끝난 이후에는 관장님으로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책의 종류가 많은 도서관에서 책을 잘 찾기 위해서는 책을 잘 분류해야 한다. 국내 도서관에서는 한국 십진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 기자들은 청구 기호를 통해 책 찾는 법을 하나하나 필기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현장에서 찾아보았다.

어린이 기자들의 추천 도서와 함께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고사리손으로 꼼꼼하게 적어간 취재 기사와 도서관의 모습을 담으며 활동을 마쳤다.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으로 우리 마을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다양한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매거진이 기대된다.



▶ 마을 선생님 모퉁이어린이도서관장 서은경의 말:

처음 해보는 어린이 친구들과의 인터뷰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된다는 제안에 고민 없이 받았는데 막상 당일 이 되니 살짝 긴장되었다. 처음 만나 어색한 눈망울을 굴리던 친구들이 서서히 질문을 쏟아내며 금방 개구진 표정을 짓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났다. 역시 어린이들은 많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부끄러워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친구, 인터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 등 각자의 개성을 볼 수 있었다. 마을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습이 기록하고 한편으로는 동네의 따뜻한 어른들의 시선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거침없이 질문하는 친구들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듬이 야기

10월 3주째 토요일 단주름!
모듬이 마을 책안개가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가 바깥을 날아갑니다)
책보기 아껴두신분들!
감사!

100: 활동
200: 글쓰기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 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모듬이 도서관에 관심 많아요!)
900: 역사
000: 출판
활동

시예리 기자의 추천작!
고양이 스크 블루그래스
를 김재관쌤 추천회
집안일에 지친 엄마
고양이가 조금도 지쳐
않는 고집이 있다
그럼 딸에게는 왕단!

나이저다: X
연이더나기: 재배치
단점은 어대만 볼드네
활동이다! 사서 선생님
활동? 사서 선생님
활동? 사서 선생님
활동!

한복 모듬이 도서관 소개 영상 관람
아름다운 10월 2시까지
구분, 배너 모두 있습니다.

선배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 2000년도 전인물로 이사
2002년도에 구인에게 도서관 이름을 두루마리서 모듬이 도서관이 됨.
원 우거지는 땅 미용한 땅 지어놓았음. 한 건물 2012년부터.
모듬이 도서관에서 읽는다는 붓들 모두 꾸러진 붓사중.
이상 시예리 기자였습니다.
~ 생각하기 ~

1. 박미라 10년
2. 대. 김보희 5년
3. 강영미 6년
4. 서은경 3년
정경미
같이 일함

아침: 10 ~ 12시

배울아하는책: 숲 너석 마셨다

선배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 2000년도에 전인물로 이사
2002년도에 도서관 이름이 바뀌었다.
2010년도에 이사를 해 전인 평평생 학습관으로 이사한 그이후에 계속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다. 휴일: 토~일 국경일 예외 토요일에 생태 체험용 아침 10~11시 까지 모이기 (24년 운영) (1년에 1번) (10월 3주 정도)
주최서은경 선생님은 2009년 (1시~5시) 어린이 운영을 하게 됨 (모듬이 마을) (책사)

모듬이 어린이
도서관 이리 유나

와글와글
성동네학당

다함께
더 좋은 유서

아이들이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책방에서 고르는 나만의 한 권 ; 〈버찌책방〉 탐방

글. 활동가 평정



4년 전 반석동에 씨앗을 심은 버찌책방은 열심히 자라고 있는 어린나무다. '당신의 꿈을 읽으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곳곳에 '책 씨앗'을 심는다. 다양한 장르의 성인 도서뿐 아니라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어린이 도서에도 책방지가 심혈을 기울였다. 어떤 책을 골라도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안전지대'인 셈이다. 또한, 전시, 북 토크 외에도 공연,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책을 옷듯이 즐길 수 있는 환경, 작은 책방

조용한 클래식이 흐르는 곳에서 향기로운 커피 한 잔과 책장을 넘기는 순간은 어른에게 힐링 그 자체다. 직접 고른 책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을 아이들이라고 마다할 리 없다. 독서를 즐기는 부모, 책에 푹 빠진 어른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에 호기심이 생길 테다.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접하며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며 버찌책방 탐방을 계획했다.

어린이 기자단 명찰을 하고 한 아이들은 책방지기 이모의 소개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다정한 목소리로 토박토박 읽어주는 그림책 『폰초네 책방』에 집중했다. 책이 책방 주인에게, 책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흥미롭게 말해주는 작품이었다. 책방 공간을 옮기는 사이, 마치 민들레 흩씨처럼 이동식 책방이라는 컨셉으로 작은 차에 책을 가득 싣고 곳곳을 누볐던 책방지기의 경험담을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취향을 발견하는 공간에서의 경험

좋아하는 책을 직접 골라 적어보는 활동에 아이들의 눈빛이 더욱 초롱초롱했다. 한쪽에 큐레이션 되어있는 그림책을 살살이 살피더니,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겨 동화책과 그래픽 노블을 뒤적이며 마음에 드는 작품 제목을 적었다. 아이들이 적어낸 도서 목록을 보니 저마다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이들은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이리저리 공간을 살피고 밖으로 나가 입구와 야외 테이블도 둘러본다. 책도 실컷 보고, 꽃과 풀도 만지고 곤충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니 지루할 틈이 없다. 순식간에 작은 책방이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 탐방을 마친 뒤 직접 고른 책을 꼭 끌어안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이번 탐방으로 어린이 기자들이 저마다 '나만의 책 한권'으로 책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작은 책방에서 스스로 책을 고르고, 읽는 것이 자연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처럼 쉽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되었으면 한다. 동네서점이 어른들과 어린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언제나 들고 날 수 있는 곳, 문턱 낮은 훌륭한 문화예술공간이라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55

동네서점이
어른들과 어린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언제나 들고 날 수 있는 곳,
문턱 낮은 문화예술공간이라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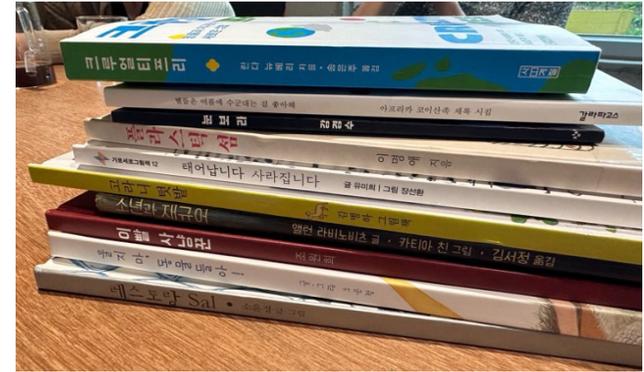


버찌
채방

지구에게 덜 해로운 삶,
일상 속 변화를 꿈꾸는 시간
함께 읽은 책 : 『크루얼티 프리』

『크루얼티프리cruelty free.』

인간 중심의 삶이 너무나 익숙한 현실에서 '동물'과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할지, 그리고 선택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야기 하는 책이다. '지구에 덜 해로운 삶의 방식'이라니. 그 행동에 대단한 구호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꿈꿨던 생각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 선정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위로와 연대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책에 힘입어 오늘도 지구에 덜 해를 입히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노력할 것이다. (활동가 와작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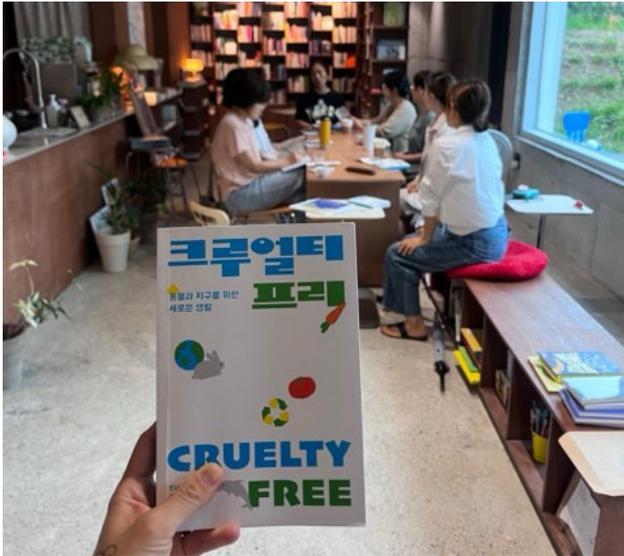
『크루얼티프리cruelty free.』 북클럽에서 함께 나눈 책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집에서 부모의 행동이 학교생활 중 아이의 태도로 나타나듯, 인간의 모든 행위가 지구의 크고 작은 곳에 영향을 미친다. 값싸고 그럴적락 맛이 나는 소고기를 한 점 먹으면, 아마존의 나무 한 그루가 베어지고 그 자리에는 소의 먹이는 옥수수가 자란다. 베일을 벗은 현실을 마주했으니 이제 바꿀 차례다. 완벽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스스로의 생각과 선택을 믿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꾸준히 연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한숨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활동가 평정)

"소수의 사람이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수백만이 불완전하게 하면 됩니다."

(p.72)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작은 노력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고기에 길들여진 우리의 식습관이다.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왜 고기를 먹지 않냐?”는 질문대신 육식을 즐기는 사람에게 “왜 고기를 드세요?”라고 묻는 사람만 만나본 적이 없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채식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가장 환경을 위한 노력임을 이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활동가 발걸음)

“왜 고기를 먹을까? 나는 점점 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너는 고기를 ‘먹지 않니?’가 아니라 왜 너는 고기를 ‘먹니?’라고 말이다. 채식주의자와 완전 채식주의자는 왜 고기를 먹지 않는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육식주의자는 왜 고기를 먹느냐는 질문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나는 여러 친구와 지인에게 육식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물어보았다. 대답은 흥미로웠다.” (p.40)



읽고 나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

집에서 쓰는 샴푸에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표시하는 토끼 그림을 보았다.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의 첫걸음이었다는 생각과 또 다른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동물들의 권리를 위하여 생태계 구성의 일원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며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크루얼티 프리』 책 속에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보여 주고 싶다. (활동가 한송이)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치약, 샴푸, 화장품 등을 고르는 일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다.” (p.31)

재사용 종량
봉투(20L)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가끔은 너무 느리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긴 일어난다.
그런 변화는
세상과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덕이다.”(p.12)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물려주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반려견과 반려
닭을 돌보는 반려인으로서 동물의
삶을 생각해 본다. 집을 짓느라 베어
낼 수 밖에 없었던 몇 그루의 나무
들이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지
갑을 열기 전, 소비와 연결된 동식물
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먹
고 입고 쓰고 버리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
들에게 해를 가했는지 인지하게 된

것만으로 삶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
한다. 시작은 한 권의 책으로 미미
했으나, 생각과 생각에 따른 실천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인용한 글귀
처럼 변화는 일어나긴 일어날 것이
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에게겐 '완벽하
진 않더라도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
어 낼 힘'이 있다. 작은 책방에 이어
마을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로 나는
그 힘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는 의지가 생겼다. (활동가 버찌)

55



55



우리 지역 또 다른 공동체를 소개해요 반석천에 반하다, 반반하다

글&사진. 활동가 민소희

우리가 살고있는 유성구의 큰 물길, 반석천에 반한 이웃들이 만들고 지키는 반반하다(반석천에반하다)라는 주민단체를 소개합니다.

달마다 반석천변에서 줍깅 활동을 하고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철마다 계절이 지나가는 주변을 인식하고 떨어진 쓰레기를 줍다보면 각종 생활쓰레기의 다양함에 놀라게 되곤 해요. 그래도 신발, 모자, 머리카, 담배꽂, 등등 어디에서, 언제부터 왔는지 모를 쓰레기들이 회원들의 집계를 통해 청소되어지는 순간들은 잊지 못할 보람과 성취를 가져오곤 합니다.

7.5km에 달하는 천변 곳곳 사계절의 변화가 놀라워요. 봄이면, 팽이밥,개별꽃, 까마중,광대수염,꽃마리,민들레 등의 봄꽃. 여름이면 쭈부쟁이,원추리,매꽃,개시호,초롱꽃,꼬리풀,남아초 등의 여름꽃. 가을이면 각시취,구절초,투구꽃,논괴불주머니,감국,머느리밋씻개,별개미취 등의 가을꽃들이 조용히 나직히 서로를 증명하며 길가는 이들을 반겨주지요.

스스로 피어나 빛나는 자생식물들이 해가 지나면 또 우리에게 화답하겠지요? 반석천을 지나며 빨강집계를 들은 이웃들과 마주친다면 반갑게 인사건네주세요. 우리들끼리 인사암호는 반반♡입니다.



우리 지역 작가의 이야기 ;

오늘에 의미를 더하는 방법

글. 돌고래

연월일을 쓸 때 2023이라는 숫자가 어색해 2022를 쓰곤 했는데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 남았다. 뒤돌아보면 달마다 계절마다 무엇을 했었는지 뚜렷하지 않다. 벚꽃이 피었다가 모내기를 하고 매미가 울더니 가을이 훌쩍 찾아왔고 영하의 날씨가 되었다. 다만 어떤 책들과 함께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몇 가지가 있다. 2023년은 책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듯하다.

출근하기 위해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옷을 입는다. 책 한 권을 담은 서류 가방을 들고 편도 2시간 거리인 회사로 향한다. 걷고 지하철을 타고 통근버스를 탄다. 돌아올 때도 같은 방식이다. 출퇴근에 자그마치 4시간이 걸린다. 버스만 편도로 1시간 넘게 타야 해서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오래 앉아 있어 무릎이 아프다. 매일 걷고 지하철에 버스에 갇혀 일터와 집을 오간다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힘겨울 것이다. 고행을 견디듯 어서 지나치고 싶은 일상에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날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내게 가장 친숙한 책과 함께하기로 했다. 먼저 세 권의 책을 고른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시간 여유가 있어도 잘 읽히지 않고 두껍거나 어려운 책을 선정한다. 의무적인 일정들 사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에 자동으로 책을 펼쳐 들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하루 중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책을 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정한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타는 시간, 사무실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점심시간. 각각의 시간대는 짧으면 10분 길면 20분을 쓸 수 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역사에서 단테의 《신곡》을 펴 읽고, 사무실에 도착해 신약성경을 읽는다. 점심을 먹고 15분 정도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는다. 한 번 읽는다고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다.

왜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할까. 김용택 시인의 저자강연회에서 들은 말이다. 시인의 사모님은 독서 모임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는다고 하셨다. 이유는 살림을 더 잘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했다. 어렵고 두꺼운 책을 굳이 읽어야 하나 했는데 이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 인류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림자를 다룬 책을 읽어서 살림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료되었다. 그때부터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나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적지 않은 사람이 읽다가 그만둔다는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올해 초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로 점심시간 독서를 시작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읽으니 진도가 느렸으나 매일 펼쳤기에 6개월 만에 완독할 수 있었다. 인류문명의 발달은 지리적, 생태적 요인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방대한 내용을 상세하고 전망위에 걸친 설명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이어졌고 현재는 허먼 멜빌의 《모비 딕》을 한두 쪽씩 흥미롭게 읽고 있다.

책과 함께했던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책을 읽은 날들과 기억에 흔적을 남겨놓았다. 한 달, 6개월, 1년이 이렇게 지나간다. 한 책을 다 읽을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음 책을 고르는 달콤한 상상 때문이다. 아폴로도스의 《그리스 신화》를 번역한 강대진 선생님의 강연을 들

을 때 단테의 《신곡》을 추천받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읽었고 천국편까지 어찌어찌 끝냈다. 중세 이탈리아의 역사를 거의 모르는 채였기에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지옥, 연옥, 천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새로웠다. 오는 주부터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쌓아놓고 한 권씩 서류가방에 넣어 다닐 계획이다. 사두고도 오랫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고전에 다가가 볼 생각이다.

어쩌면 일상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넘 놓고 있으면 무의미하게 흘러가 사라지는 자투리 시간을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멍하니 있는 시간, 근무시작 시각 전 조금의 시간,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의 조각들을 그러모아 책을 배치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연료로 삼아 습관적으로 책을 폈다. 챗바퀴 돌리는 하루에 책을 더하니 하루가 달라졌다. 반복되는 밥벌이의 고단함과 의무감에 짓눌리지 않고 작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 선택했고 꾸준히 이어갔다. 작은 선택과 꾸준함으로 쌓인 지난날들은 오늘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떤 의미를 띤 하루가 될 생각에 자못 기다려진다.

(돌고래 씬, 독립출판 《그림책을 읽고 약을 끊었습니다》 저자)

55

작은 선택과 꾸준함으로 쌓인 지난날들은
오늘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

55

마치는 글

▶ 활동가 평정 : 어린이 기자들의 작은 발은 어른들이 가지 않는, 때로는 감히 가지 못하는 곳에도 진한 발자국을 남겼다. 아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지고 친절할 어른들을 만났고,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인지 새삼 깨달았다. 아이들의 집중하는 눈빛, 귀 기울여 듣는 자세, 즐겁게 기록하는 바쁜 손, 최선을 다해 즐기는 모습에 매번 감탄했다. 아이들에게 선사해주고 싶었던 생생한 '우리' 그리고 '동네'의 감동은 아이들 덕분에 어른들에게도 전해졌다.

▶ 활동가 외작외작 :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아끼는 마음이 출발점이었고 활동하는 내내 혼자자 아니라 함께여서 더 의미 있고 든든했습니다. 직업에 진심을 담은 어른들을 만났고, 친절하고 다정한 이웃이 곁에 있다는 희망을 품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보의 중심에 어린이들이 함께여서 무엇보다 감사했지요. '우리'로 연결된 시간은 어른과 어린이가 연결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질문하는 어린이들, 서로에게 다정한 어린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주 감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었다면 어떤 이야기에도 힘이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며 좋은 어른이 되길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신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고 싶은 곳으로 잘 가꾸어지길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활동가 발걸음 :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아이들의 사진 수업을 제안 받았을 때 아이들에게 사진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 필름, 현상에 관한 사진의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히 바라보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다보면 필름에 기록하고 싶은 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천 번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쓰레기통 줄는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한걸음 다가가고 한걸음 멀어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름의 계절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에 돌아보는 여름의 기억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가 한송이 :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니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와주신 학부모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만났던 아이들,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주신 지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알게 되고 천천히 스며들었던 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덕분에 뜻깊은 2023년 한해를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있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매거진 고리를 위한 마을 생태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기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김승후
김서진
김유진
하서윤
김서준
서문건
김서윤
이나영
현세인
김시아
김수현
김수진
박유하
구건호
홍승현
홍승범
홍유빈
이지우
이규빈
이가영
남사울
양세아
김규원

권유주
권예나
서예리
김태양
배지윤
강지혁
박제나
이주비
이지안
양선우
이재윤
김지효
편선유
이은유
김은성
김민서

고리



고리

유성구 마을 매거진 고리 2023
vol. 1

창간호 발행일 2023년 12월 25일

펴낸곳 유성구 공동체 연결고리

편집 디자인 버찌책방

제호 디자인 탁지은(스튜디오 슬로먼트)

예산 집행 조영아

활동가 & 집필 위원 김은영, 조수정, 조영아, 조예은, 한성희

매거진 고리에 수록된 모든 글과 그림은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매거진 고리 발행 공동체 연결고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거진 고리는 매년 마을 교육 예산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매거진 고리에 어울리는 참신한 활동 아이디어는
cherrybooks2019@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이 책자는 유성구 교육과학과 마을교육 사업
와글와글 동네학당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